

아프리카시장의 경제성과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이근영*

A Study on the Economical Efficiency and Advance Strategy in African Market

Keun Young Lee*

요약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아프리카에 진출하였으나 아프리카시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아프리카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늦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요 '떠오르는 신시장'으로써 상품수출은 물론 부족한 천연자원 확보의 교두보로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시장이다. 이 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으로는 적극적인 FTA추진과 함께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또한 정보력과 경험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 아프리카통일기구(OAU), 국제금융조합(IFC) 등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Since the beginning of 1960s, Korea has been advanced into Africa but we are much too late to extend its business in African Market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re. From being the latest Africa is understanding as 'Rising Sun & Post Brics' for Korea. As an advance strategy in African Market suggest to get international co-operation from ECA, OAU, IFC together with IMF & IBRD etc.

▶ Keyword : 자유무역협정(FTA),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 국제금융조합(IFC), 비관세장벽(NTB)

• 제1저자 : 이근영
• 투고일 : 2010. 06. 15, 심사일 : 2010. 06. 17, 게재확정일 : 2010. 06. 19.
* 경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이 연구는 2010년도 경원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

I. 서론

불과 수년 전까지도 아프리카대륙은 경제적 낙후와 정치적 격변, 전쟁과 기아, 부패와 독재, AIDS 등 질병의 창궐로 경제발전의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위기의 대륙' 혹은 '신이 버린 국가들'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으로 인해 아프리카 시대라고 일컬어진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대륙에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구제불능의 땅'이 아닌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2000년에 들어와서는 정치적으로 민주화의 진전, 경제적으로 경제개발과 시장 개방경제로의 전환 등 가시적 성과를 통해 아프리카를 보는 전 세계의 시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제 21세기 아프리카는 적어도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보다 완전한 형태의 독립을 이루었고, 따라서 그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개발계획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됨으로서 금후 아프리카인의 사고체계 및 생활방식을 변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변화의 조짐은 최근 들어 아프리카대륙 전체에 걸쳐 가속화되고 있는 역동적 경제성장에서 잘 드러난다. 최근 IMF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제국은 앙골라, 나이지리아 등의 산유량 및 원유생산시설 투자확대, 선진국의 원조확대 및 외채탕감, 분쟁감소에 따른 정치적 안정, 구조개혁정책의 정착 등 요인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이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그동안 아프리카를 구제불능의 대륙으로만 보아왔던 세계의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우선 IBRD와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식량 등 단순 원조제공에서 탈피하여 직접 경제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간접자본의 개발과 교육, 보건 등 인적자원 개발 등 실제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1], 아울러 선진공업국들도 아프리카제국을 새로운 투자 대상국, 장래의 교역 파트너로 키우자는 구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해가는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필요한 천연자원 공급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외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종래의 아프리카가 자원 내셔널리즘을 표방하면서 국제정치적 명분을 중시하였다면, 새로운 아프리카는 우리와 같은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국제정치면에서도 실리를 중시하는 태도를 표방해 나가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커

가고 있다고 본다 [2]. 이렇게 볼 때 아프리카시장의 경제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조명되어야 하며, 아울러 해외부존자원의 확보가 국가적 최대 과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프리카에 대한 연구는 더욱 더 심화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II. 아프리카시장의 경제성

1. 아프리카 위치

아프리카(Africa)는 지구 동반구의 남서부에 있으며 남북 양반구(兩半球)에 걸친 아시아 다음으로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세계 제2의 대륙이다. 면적은 주변 섬을 합하여 3천2백만Km²로써 지표 면적의 6%이고, 이는 육지 면적의 20.4%에 달하며, 인구는 61개 영토에 10억 명(2009년 기준)이 살고 있고, 이는 세계 인구의 14.8%에 해당한다. 아프리카 대륙 주변으로 북쪽에는 지중해, 북동쪽에는 수에즈 운하와 홍해, 남쪽에는 인도양, 서쪽에는 대서양이 있다. 이 대륙에는 분쟁지역인 서사하라를 빼고 마다가스카르와 여러 도서지역을 포함하여 총 53개국이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으로 적도가 지나가고, 온갖 기후대가 나타나는 유일한 대륙이다.

2. 아프리카 자원 현황

글로벌 경제시대에 아프리카는 더 이상 과거 '위기의 대륙'이 아닌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프리카가 세계적인 광물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7].

표 2-1. 아프리카 주요 광물자원 현황(07년)
Table 2-1. Major mineral status in Africa

광물자원	세계 총생산	아프리카 생산량	생산 비율	주요 생산국
백금	6.4백만 온스	4.6백만 온스	72%	남아공, 짐바브웨
다이아몬드	1.17억 캐럿	6.4백만 캐럿	55%	콩고민주, 앙골라, 남아공
크롬	12백만톤	6.3백만톤	53%	남아공, 마다가스카르
망간	22.4백만톤	5.9백만톤	26%	남아공, 가봉, 가나
금	2.57천톤	598톤	23%	콩고민주, 탄자니아, 가나

우라늄	3.5백만톤	6.2천톤	17%	니제르 나미비아, 남아공
보크사이트	1.38억톤	1.6천만톤	12%	가나, 카메룬, 마다가스카르
코발트	29억톤	3.5억톤	12%	콩고민주, 잠비아, 모로코
동	12.5백만톤	47.4만톤	4%	콩고민주, 잠비아, 남아공

특히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게는 [표 2-1]에서 보 여주듯이 우리의 주요한 공급원이 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풍부하게 부존된 광물자원의 개발투자와 빈약한 광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건설사업 참여 기회는 매력적이라 하겠다. 아프리카시장에 대한 또 다른 매력포인트는 신생산유국이라는 점이다.

표 2-2 세계 지역별 석유개발 현황(07년)
Table 2-2. World's oil resources status

구분	확인 매장량		생산량	
	10억 배럴	비중(%)	1,000 배럴/일	비중(%)
북미	59.9	5.0	13,700(16.5)	16.5
중남미	103.5	8.5	6,881(8.8)	8.8
유럽	144.4	12.0	17,563(21.6)	21.6
중동	742.7	61.5	25,589(31.2)	31.2
아프리카	117.2	9.7	9,990(12.1)	12.1
아시아 태평양	40.5	3.5	7,941(9.7)	9.7
세계전체	1,208.2	100.0	81,663(100.0)	100.0

아프리카는 2006년 기준 세계 석유확인 매장량 및 생산량 비중이 각각 9.7%와 12.1%로 아직까지는 중동(61.9%)이나 유라시아(11.7%)에 비해 작은 규모이나 [표 2-2]에서 보여주듯이 석유의 추가 발굴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향후 중동 지역을 대체할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크게 조명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의 신생 산유국으로 2007년 1월 OPEC에 가입한 앙골라의 경우 고유가 덕분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700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또한 막대한 오일머니 유입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 자원 개발의 선두주자인 중국은 대규모 무차별적인 원조제공과 정상 방문외교를 통해 자원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국은 원유수입의 약 30%를 아프리카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그 수입 비중을 2025년에는 45%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같이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은 내전종식과 정치안정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한 외자유치에 노력하고 있고, 이와 병행하여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이 아프리카 각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광물자원개발투자 진출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바, 지금이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석유자원 및 광물자원의 개발투자 진출의 적기로 판단된다고 하겠다.

3. 아프리카의 사회적 비즈니스 문화

아프리카의 사회·문화는 이 대륙이 최근까지 '역사가 없는 대륙' '암흑대륙' 등으로 불려왔기 때문에 대체로 오늘날까지 미개·야만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아프리카의 사회나 문화에는 특수성이 있다.

아프리카 대륙이 지닌 특수성은 문화면에서는 네그리튀드(Negritude)라고 하며, 보다 넓은 사회적·정치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한 개념으로서는 아프리카적 개성(African personality)이 채택된다. 어느 것이나 아프리카인의 문화나 사회에는 흑인 특유의 전통적 성격이 바탕에 깔려 있는데, 그 성격이란 식민지시대의 외래문화의 유산까지도 섭취하여 근대화된 형태로서 아프리카적 가치체계, 아프리카적 개성의 창조가 아프리카 각국의 예술로 승화되고 있다 [3].

한편, 아프리카에는 53개국이나 되는 많은 국가가 존재하고, 또한 아프리카에는 너무나 많은 부족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기에 그만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진출에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은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 물론 아직도 부정과 부패가 정부와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과연 법이 존재하고 규범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철학 및 문화를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과 거래하려고 한다면 좋은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아프리카 비즈니스에 참고가 될 몇 가지 유의사항을 소개하면 첫째, 매사에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널리 알려진 속담 중에 "빨리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Haraka haraka haina baraka)"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급할 것이 하나도 없는 아프리카인의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한번에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아프리카 시장 지배구도가 인도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시장이 아프리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작은 규모라도 무시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현지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전통적으로 아프리카는 가족 중심주의 사회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인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들을 먼저 인간으로 대한다면 더욱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넷째, 아프리카인에게는 말보다 문서가 우선한다. 관공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 개인들 사이에도 문서가 우선하므로 어떤 일을 진행하던지 문서로 모든 사항을 남겨두는 것이 훗날을 위해서 유익하다. 그들이 신봉하는 문서는 사회에서 그만큼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문서화에 미숙한 한국인에게는 아프리카인의 이런 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아프리카인들에게 어떤 일을 물어보면 그들에게 공통적인 대답이 “할 수 있다(I can do it)”고 대답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대답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큰 코 다칠 일이다. 왜냐하면 그 대답의 진의는 그들의 호의적인 표시로써 일단 노력해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III. 아프리카시장의 진출전략

1. 아프리카의 경제개발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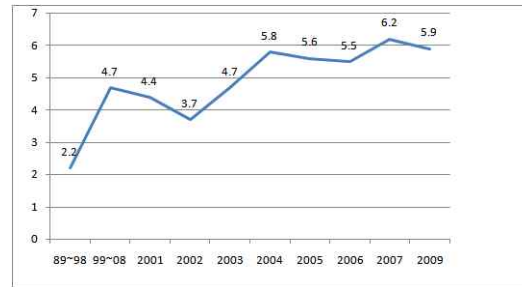
세계 각국의 원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58년 UN이 설립한 경제개발기구로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가 있다. 이 기구는 아프리카 독립국 49개국과 영국·프랑스·에스파냐 등이 운영을 맡고 있으며, ECA에는 역내무역, 통화관리와 역내결제, 산업·천연자원, 운수·전기통신, 농업, 노동력 및 훈련, 종합경제의 7개 실무회의가 있어 이 대륙의 경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락과 조정, 조사와 기회를 추진하고 있다. ECA가 OAU(아프리카 통일기구)의 협력을 얻어 실행하고 있는 정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아프리카의 독립국을 북부·동부·중부·서부의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제각기 ‘공동시장’을 결성한다는 계획이다 [6].

한편, 아프리카 유일의 자본 선진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오랜 분쟁의 씨앗이 되어온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이 민주화의 물결로 사라지면서 아프리카 전체의 경제적 중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구는 전 아프리카 대륙의 6.8%, 면적에서는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민총생산에서는 아프리카 전체의 25% 가량이고, 전력 생산량이나 자본 투자 면에서는 약 50%, 철강생산량에서는 약 75%를 차지함으로써 아프리카시장의 실제적 맹주로 인정되고 있다.

2. 아프리카 경제성장 현황

지금 아프리카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투자형태의 오일머니 유입급증과 전후 대대적인 인프라 복구 프로젝트사업 및 석유 관련 플랜트 건설경기 호황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표 3-1. 아프리카 실질 GDP 성장률 추이
Table 3-1. Rate of real GDP growth of Africa



[표 3-1] 에서 보여주듯이 2000년에 진입하면서 2002년에 3.7%를 기반으로 2005년에 5.3%, 2007년에 6.2%, 그리고 2009년에도 대략 5.9%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리비아, 나이지리아, 알제리 순으로 이어지는 원유수출국으로 인한 영향이 크기 때문이며, 이러한 성장세는 향후 새로운 유전개발과 다른 기타 자원들로 인하여 수년간 건설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세계 지역경제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은 점차 경제성장률이 줄어들고 있는데 비하여 신흥개도국과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표 3-2] 참조.

표 3-2. 주요 아프리카국 실질 GDP 성장률
Table 3-2. Rate of real GDP growth of African country

	2006	2007	2008	2009
알제리	2.0	4.6	4.9	4.9
수단	11.3	10.5	7.6	12.7
앙골라	18.6	21.1	16.0	13.2
나이지리아	6.2	6.4	9.1	8.3
탄자니아	6.7	7.3	7.8	8.0
가나	6.4	6.4	6.9	7.5
이디오피아	11.6	11.4	8.4	7.1

3. 아프리카시장진출 확대방안

부존자원이 어느 나라보다 빈약한 우리에게 아프리카제국은 부족한 천연자원의 확보와 수출증대 측면뿐만 아니라 UN에서의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제무대이며 또한 경제시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욱 더 아프리카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에서는 먼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정부 측의 지원정책방향과 기업 측의 확대방안을 살펴보려 한다 [5].

3.1 기본 방향

아프리카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기본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제협력과 더불어 수출확대를 이룩해야 한다. 수출이익의 극대화나 원료 및 자원확보에만 급급하지 말고 현지 국가의 진지한 경제개발 노력에 협력파트너로서 협력·공헌한 후에 이윤 및 안정된 자원을 확보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둘째,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수출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아프리카시장의 수출확대는 선진제국의 경우와 같이 자본집약적이거나 고도기술집약적인 대규모 수출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어 우선 현지국가의 연건에 합치되는 중소기업의 수출기회를 확대·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셋째,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아프리카시장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데는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체제 마련과 수출기업에 대한 행정지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것은 정치적 불안정, 시장규모의 협소, 기간산업의 미비, 만성적인 외환부족에서 오는 대금경제상의 위험, 각종 자국화정책의 강화 등의 문제점이 상존하는 상태에서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시장이 국민경제상 아무리 중대하다 하더라도 민간기업 단독의 힘만으로는 확대추진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3.2 정부 측의 지원정책방안

기업의 아프리카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정부의 지원정책은 첫째로 경제외교의 적극화이다. 정부가 경제외교를 전개함에 있어서는 먼저 조사단을 상대국에 파견하여 상대국의 보유자원, 경제개발계획의 내용, 산업무역정책, 생산시설, 시장규모 및 대외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후 정치·경제회교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 둘째로 각종 지원체제의 재정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지원체제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정책이나 무역정책면에서 유기적인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아프리카지역은 기술위험도가 높고 현지금융조달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지원제도를 강화

하고 또한 보험지원제도도 개선해야 하며 아울러 기술협력을 위하여 정부기관 및 공공부분에의 연수생 초청 및 기술전문가 파견을 제도화하여 개발경험과 기술정보교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지역별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아프리카시장 진출확대방안은 투자유망대상국 중 지역경제블록의 중심국, 자유무역지대설치국, 인접국으로의 우회진출이 용이한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3 기업 측의 확대 방안

아프리카시장에 대한 기업 측의 진출방안에는 상품수출과 자본진출의 확대방안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첫째로 상품수출의 확대방안이다. 아프리카시장은 전통적으로 농산품 및 광물자원 등 1차상품의 수출과 중간재, 자본재 등 공산품의 수입이라는 구조적인 수지불균형의 무역형태이므로 중요한 것은 수출상품 개발, 기술 및 디자인 개발에 의한 상품의 다양화, 수출상품의 고급화와 품질향상, 판매장 및 애프터서비스 확보 그리고 대금결제가 아닌 물물교환방식의 구상무역형태에 의한 원자재 확보가 더 유익할 것이다. 한편 아프리카에서의 상품수출은 경제협력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리카제국은 국제원조기구나 선진국으로부터 공여된 경제협력자금 특히 원조에 의존하여 개발계획, 연도별 재정계획, 수입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자본, 기술, 군사 등의 경제협력과 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아프리카제국과의 관계증진으로 진출기반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로 자본진출의 확대방안이다. 아프리카는 외화기득물이나 투자순수익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고 투자전망이 매우 밝은 곳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최적의 해외직접투자 대상 지역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및 중국 등 해외자원확보에 혈안이 된 국가에서는 점차 세계적으로 고갈되어가는 천연자원 확보차원에서 솔직히 투자수익률이나 외화기득물 등을 따질 처지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기업의 자본투자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자본·기술능력, 아프리카시장 잠재능력에 큰 부문 및 현지자원 및 원료의 이용 가능성이 큰 부문 그리고 기계, 프랜트 등 자본·시설제수출이 가능한 부분 등이 선정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자진출은 원료 및 반제품의 장기공급, 투자관련기계류수출, 플랜트 수출, 전초기지의 구축, 해외건설 및 용역진출의 가능성 그리고 외교적인 효과 등 2차적인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IV. 결론

우리나라는 비교적 일찍부터 아프리카 진출을 시작하였고, 1980년대 초에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와 국교가 수립되어 수교국 대부분에 상주공관이 설치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진출은 동남아에서 중국, 북방 등 신 시장 개척이 활발해 지고 그리고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진출대상국으로서의 매력에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아프리카는 우리나라에게 '기회의 땅'으로 상품수출은 물론 부족한 천연자원 확보의 교두보로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시장이 되었다.

아프리카에 진출하고자 할 때 반드시 유의할 열악한 상황들은 전기, 도로, 통신, 항만, 급수 등의 인프라 빈약과 복잡한 행정절차, 지루한 통관절차, 부정부패 등의 비능률, 사회주의 잔재로 인한 낮은 근로의식과 추가적 사회보장 부담, 복잡한 금융 시스템과 비효율적인 금융 서비스 등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자원개발투자의 진출 방안 검토에서는 이들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과 인내심 그리고 투자결정 변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야 하고, 또한 지역별, 업종별 투자진출 전략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데 그 실천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 수 있다.

첫째로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술, 정보력 등의 경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에 진출한 선진광업회사와 합작진출 및 현지 업체와의 합작투자도 중요한 광업진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로 대부분 광업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개발 원조자금(ODA), 세계은행, 국제금융조합(IFC)자금 등을 활용하여 광업 인프라를 건설해 주고 전략광물을 개발 수입하는 복합투자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로 아프리카지역은 우리나라와 원거리로 해상운송비가 과도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해상운송이 용이한 우라늄, 귀금속(금, 백금 등) 및 일부 비철금속이 적합한 대상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넷째로 종합적인 광업투자변수를 조사하고, 최신 광업 프로젝트를 수집할 광업정보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로 '틈새시장에서 길을 찾아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아프리카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53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거점국가를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3+3', 즉 '사하라 이북 3개국(알제리, 이집트, 리비아)+사하라이남 3개국(앙골라, 남아공, 나이지리아)'에 진출 노력을 집중하면서 점과 주변국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전략 추진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1]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아프리카 지역경제동향" 2009.
- [2] 이근영, "국제무역의 이론과 실무" 무역경영사, 2005.
- [3] 천상덕, "아프리카 경제와 우리의 진출확대방안,"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171쪽, 1984년.
- [4] 대한무역진흥공사, 아프리카시장동향과 진출확대방안, 동공사, 31-32쪽, 1982년.
- [5] 이영두, "아프리카 시장진출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년.
- [6] 이근영, "해외시장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 12권, 제 1호, 200-203쪽, 2007년.
- [7] 이근영, "한국의 FTA추진 정책과 한중FTA에 대한 시사점,"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 14권, 제 7호, 170-175쪽, 2009년.
- [8]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 [9] 한국광물자원공사 - <http://kores.or.kr>
- [10] 해외건설협회 - <http://www.icak.or.kr>
- [11] 한국수출입은행 - <http://www.koreaexim.go.kr>
- [12]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 <http://www.fta.go.kr/user>
- [13] KOTRA 해외투자정보 - <http://www.kotra.or.kr>
- [14] LG전자 글로벌 마케팅 - <http://www.lge.co.kr>
- [15]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
- [16] 2009 무역연감, 한국무역협회.
- [17] IMF, World Economic Outlook(2008.4)
- [18]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 [19]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8.
- [20]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5-2009.
- [21]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171쪽, 1984.

저 자 소 개

이근영

중앙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세종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경제학박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

(교육학박사)

(주)L/G전자 자재부장, 특판영업부장,

미주수출부장

(주)L/G/전자 남미 칠레지사장, 파나

마 현지법인장

현재 : 경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국제무역, 경영정보, 국제

마케팅, 교육행정